

(주소) 12283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전화) 031-579-6014 (팩스) 031-579-6041

배 포 일	2024.4.21.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4.21.(즉시)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 개막-		3	있음	www.silhak.ggcf.kr	부 서 : 학예운영실 사업담당 : 김엘리(579-6014) 홍보담당 : 박한별(579-6044)

## 실학자의 손길로 태어나 예술가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그림 백과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 개막-

- 전시명 :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Jasan Eobo” Rewriting with pictures)
- 개막일 : 2024. 4. 30. (화) / 개막식 오후 3시, 실학박물관 다산정원
- 기 간 : 2024. 4. 30. (화) ~ 2024. 10. 27. (일) / 총 181일 간
- 장 소 : 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6)
- 참여작가 : 총 39명  
 김나경, 김도은, 김민재, 김수광, 김승현, 김혜윤, 남윤서, 박재영, 박준수, 박찬흠, 변예솔, 선시우, 손림성, 손우진, 신현채, 심승보, 안드레, 양서연, 양예준, 오원찬, 윤다냐, 윤진석, 윤희준, 이민서, 이은수, 이종훈, 이태진, 임이정, 임지호, 전민재, 전유현, 정지원, 조민준, 조태성, 조현준, 최하은, 최희연, 표거연, 황성제 등 발달장애 예술가(총 39명)

### ▶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꿈꾸며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은 2024년 4월 30일 화요일부터 10월 27일 일요일까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를 개최한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지난 2022년 박물관 정의에 박물관의 접근성과 포용성,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추가했다. 기존 박물관 정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지향한 것이다.

실학박물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새롭게 정의된 박물관의 역할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번 전시는 실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관람객 주도형 체험 전시로, 점자·음성지원 패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낮은 높이의 전시보조물과 쉬운 글 설명,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소를 곳곳에 반영했다.

### ▶ 정약전의 실학 정신이 빛나는 바다생물 백과사전, 『자산어보』

『자산어보』는 실학자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중 집필한 해양생물 백과사전으로, 바다생물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생김새와 특징, 잡는 방법과 이동 경로, 쓰임새, 조리법과 맛 등을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고 기록한 책이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섬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산어보』를 집필했다.

정약전은 본래 『자산어보』를 그림 백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림 대신 글로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동생 정약용의 권유로 글로만 기록하게 되었다. 정약전의 꿈은 후대 사람들이 『자산어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이 병을 치료하고, 재산을 관리하거나, 시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자산어보』는 자신이 배우고 탐구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정약전의 실학 정신을 담은 빛나는 유산이다.

### ▶ 오늘날 우리가 함께 완성해나가는 『자산어보』

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는 정약전의 바람대로 오늘날 우리가 『자산어보』를 완성해 나가는 관람객 주도형 체험 전시로, 총 6부로 구성되었다.

**1부 <자산어보 속으로>**는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고 『자산어보』를 집필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였으며, 조현서 어린이가 작곡한 전시 주제곡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관람객을 『자산어보』 속으로 안내한다. **2부 <나눔과 묶음으로 한눈에 쏙>**은 체험형 미디어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이 『자산어보』의 해양생물 분류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3부 <보고 듣고 알아내다>**에서는 정약전이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과정과 내용을 멀티미디어 전시자료로 체험할 수 있다.

**4부 <이름을 짓자>**에서는 정약전이 『자산어보』에 기록된 226종의 해양생물 중 131종의 이름을 지어준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5부 <쓰임을 찾자>**에서는 흑산도 어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해양생물의 쓰임새를 연구했던 정약전의 실학 정신을 이해하고, 『자산어보』가 알려준 해양생물의 쓰임새를 체험전시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부 <그림 백과로 쓰다>**에서는 관람객이 체험형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그림 백과 자산어보를 완성할 수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으로 완성된 ‘그림으로 다시 쓴 『자산어보』’를 감상할 수 있다.

### ▶ 실학자의 손길로 태어나 예술가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그림 백과 『자산어보』

이번 전시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주고 받은 편지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주목한 《동백꽃은 지고 봄은 오고》(2023)를 기획한 김엘리 학예연구사와 독특한 색채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조선비주얼》(2023)의 공간 디자인을 담당한 이성연 학예연구사가 기획했다. 아울러, 작곡가 조현서 어린이, 전국의 발달장애 예술가 39명, 명품배우 박철민, 정인기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가 함께하며 특별함을 더했다. 또한, 한젼마 러쉬 코리아 부사장이 발달장애 예술가 아트 콜라보 디렉터로 참여하며 전시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 3월 실학박물관은 전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박물관 현황 및 전시기획 의도 소개, 정약전과 『자산어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서 어린이는 흑산도 사람들을 향한 정약전의 마음을 담은 전시 주제곡 <자산어보 속으로>를 작곡했다. 39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는 정약전이 『자산어보』에 기술한 해양생물의 설명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에 자신만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온전히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실학박물관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인연을 맺은 박철민, 정

인기 두 배우는 전시 음성해설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

전시 주제곡 <자산어보 속으로>를 작곡한 조현서 어린이(서울 대도초 6)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약전 선생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자산어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어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했으며, <거북이와 친구들>을 그린 최하은 어린이(부산 금양초 4)는 “정약전 선생님은 『자산어보』에 거북이 등에 굴 껍데기가 붙어있다가 조각조각 벗겨진다고 썼는데, 거북이 등에 붙은 따개비와 조개껍데기는 거북이가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각각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필국 관장은 “예술가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현대적 감각으로 완성된 그림 백과 자산어보를 통해 실학의 동시대성과 현재적 가치를 느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은 전시 개막 당일인 4월 30일 오후 3시 실학박물관 다산정원에서 열린다.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 전시 연계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https://www.ggcf.kr/>)과 실학박물관 누리집(<https://silhak.ggcf.kr/>)을 참고하면 된다.

- ※ 붙임 1. 포스터 이미지 1매  
2. 홍보이미지 1매  
3. 자산어보 이미지 2매  
4. 대표 작품 이미지 8매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for the 15th anniversary of The Museum of Sillhak

#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

Rewriting with pictures  
"Jasan Eobo"



2024  
4.30. Tue - 10.27. Sun

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

실학박물관 | 강현군 | 실학박물관 | 4차 |

조대성 작가의 작품

▲ 포스터 1매

그림으로  
다시 쓰는  
“Jasan Eobo” Rewriting with pictures  
**자 산 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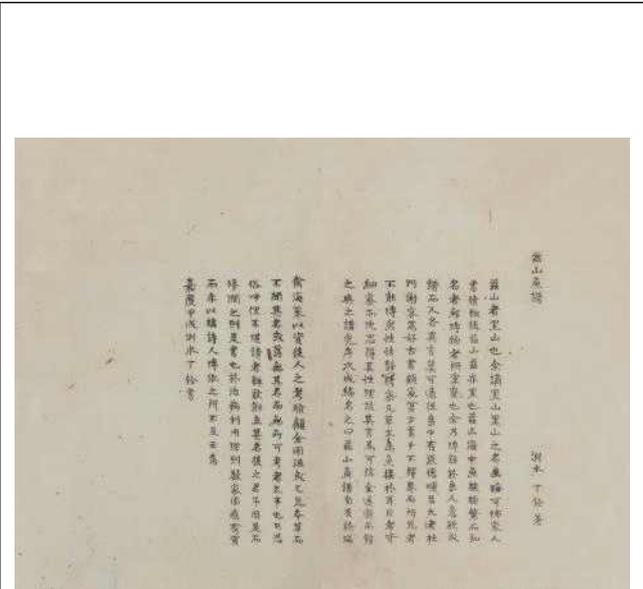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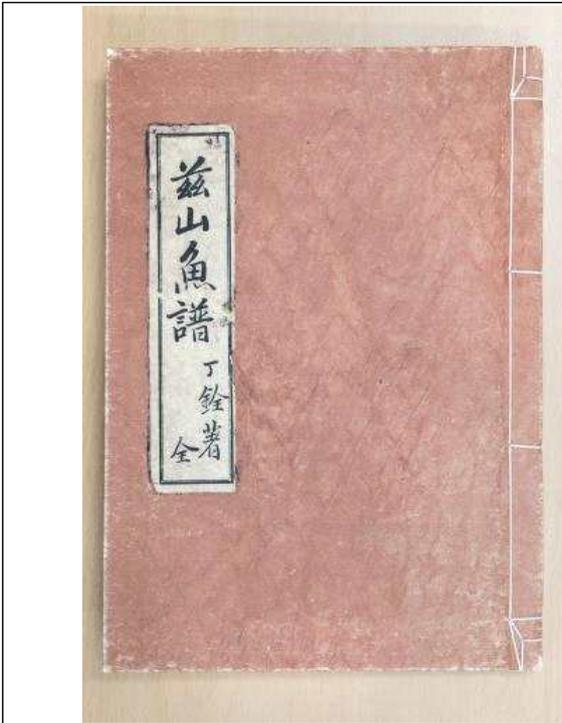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for the 15th anniversary  
of The Museum of Silhak

2024  
4.30. 화 . 10.27. 일  
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실학박물관
- 강진관
- 과학박물관
- 현대미술관
- 현대미술관
- 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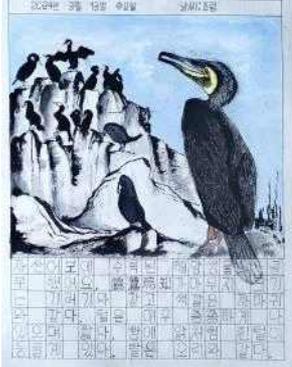
▲ 홍보 이미지 1매



▲ 자산어보 표지(왼쪽)와 서문(오른쪽)(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오리엔테이션 진행 모습 1매

			
<p>▲ 색을 입힌 삼천발이 / 손우진, 2024</p>	<p>▲ 춤추는 말미잘(바다의 아네모네) / 변예슬, 2024</p>	<p>▲ 톱상어의 무리 / 안드레, 2024</p>	<p>▲ 생각에 잠긴 가마우지 / 심승보, 2024</p>
			
<p>▲ 푸른 바다 속 자주복 / 박준수, 2024</p>	<p>▲ 거북이와 친구들 / 최하은, 2024</p>	<p>▲ 그리움에 눈이 튀어나온 넙치 / 신현채, 2024</p>	<p>▲ 가마우지 / 표거연, 2024</p>